

속 기록

- 회의명 : 제38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4. 10. 6(일) 09:30~12:38
-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걸음을 시켜드려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 주신 직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성태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정갑영 위원님이 줌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등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극장운영팀 심정훈 과장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 11인이 참여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시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에 개최한 제381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어서 3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 진행순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지금 그러면 뭐가 먼저 시작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먼저 시작되는 게 맞나요?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의결안건은 4건인데 첫 번째가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두 번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결정의 건. 세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연장 대관심의 참여 결정의 건. 네 번째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구성 등 4건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신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무용위원 성기숙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회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위원으로 8월 30일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인 9월 27일 전체회의 계획이 잡혔다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고요. 그다음 9월 30일 전체회의 계획이 잡혔다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무산되었고 이번이 저로서는 8월 30일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세 번째 조정을 통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회의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결안건 순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전담심의제 위원의 참여 건에 대해서 4명의 위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4명이 안전상정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의결안건 순서변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발언을 먼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체회의가 파행되었을 때 그날 발의 건이 제가 알기로도 3인 이상의 참여의사가 있으면 발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인의 위원님들께서 발의안건에 사인을 하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사무국에 여쭙겠습니다. 의결안건이 올라오려면 4인의 위원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한 번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다시 재상정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인지? 의결할 때 갖추어야 할 규정과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회나 재상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철회가 되고 다시 당일 아침에 다시 재상정된 것이 법과 정치를 모르는 저로서는 동네 반상회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인하신 나머지 3인의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게 맞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결안건으로 할 것이냐, 보고안건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유보했다가 의결안건으로 바꾼 걸로 아는데요.

이훈경 위원 : 이것도 사무처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의결을 할지 보고를 할지 보류를 하신 건지? 이것도 일단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과정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들 네 분께서 사인해 주시고 의결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 공식적인 철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의결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 3건에 대해서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의결안건으로 다 다루는지? 또는 일부는 의결안건으로 다루고 일부는 보고안건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의결안건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일날 두 분께서는 집안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신다고 시간이 다 돼서 연락을 주셨고 두 분은 결국 파행되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잡을 때 어느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연의 게스트까지 바꾸셨고요. 다른 분들이 일정까지 바꾸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날 못 오신 분들이 저희 위원을 배려한다면 한 말씀씩 사과를 해 주시고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결국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것을 잘 조율하고 조정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것이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간에 시시비비를 계속 가리게 되면 회의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리 절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조율하고 조정해 가면서 보완하고 다듬어 가는 측면이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당일에 나오셨던 분들이나 안 나오셨던 분들의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의 입장에서 잘 조정하고 조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마시고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회의는 회의장에서 논하는 것이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되고 조율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안건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요. 이훈경 위원님, 의결사항 안건 순서변경에 대해서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10월 8일 공모사업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 문제를 먼저 다루야 사무처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현장에서는 이미 다 약속된 바 10월 8일에 공모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먼저 논의가 되고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모든 절차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이훈경 위원님이 전담심의제를 말씀하셨는데요.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기 전날 9월 29일 일요일 저녁에 송시경 처장님과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요. 그 과정에서 전담심의제를 1번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훈경 위원님께서 9월 27일 회의개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문예위 직원들도 다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검증받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8월 30일 오전 8시 30분에 이루어졌던 선정위원회 후보단 총원하는 문제의 회의는 아무 규정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7일 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라는 말씀을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분명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게 됐기 때문에 사무처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를 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회의 진행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 공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안건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문모 위원 : 예. 일단은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사료 깊지 못한 판단과 지식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9월 9일에 정책세미나인가요? 그것을 할 때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찾아서 갔고요. 그래서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소신이 뭐냐하면 문체부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예위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선 이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면 양쪽 다 굉장히 피해를 볼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양쪽 모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은 사실상 일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미룬다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 심의도 들어갈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의결안건으로 내놨을 때는, 그다음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전담심의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담심의를 하는데 우리 비상임위원들께서 참여를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전년도에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후보단을 개편하면서 이후 심의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게 어떠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정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일단 보류가 되고, 안 하기로 하고 그 대안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오랜 경력이 있는 직원 중에서 공모를 해서 전담심의관으로 도입을 하고 이것을 계속 서치를 하자. 지속가능하게 이것을 관리해 나가자는 식으로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부 방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했고, 그리고 새로 오신 장관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또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논의를 하고 나서도 그 뒤에 또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도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세 분이 서명을 하셨듯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더 득이 많다는 판단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의안으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는 합의체로 되어 있고 법 취지 등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들어오셔서 함께 논의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좁혀 가고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9월 27일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그 안건에 서명을 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르 위원이 아니라서 위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하고 큰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회의에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6대 6 동수라서 부결될 것이다.”, “그래서 미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막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회의에 가서 뭘 할 수가 있지?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건가?”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존재 이유나 존재 의미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절의서를 지난 월요일에 전 위원님들께 내부 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만 빼고 아무도 안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내부 메일에 안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부 메일이라고 해서 그냥 회의자료가 올라오는 정도인데 그것은 그냥 개인 메일로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에는 위원회 사업이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사무처장님이 어디에 가신다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도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도가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책임심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게 2월에 전담심의회 시범운영 계획(안) 이것을 하나 받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3월에 선임이 되었다. 4월에 위촉식을 했다는 것밖에는 받은 게 없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상임위원의 심의참여는 FGI 조사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으므로 시범운영에서는 참여 제외” 이렇게 못을 박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들어갈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훈경 위원님도 처음에는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보이셨다가 접으셨는데요.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서 왔거든요. 저희는 논의기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2월 회의자료고 1월에 약 200명 정도의 의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분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못이 박아서 들어왔고 그 이후로 심의위원 선정에도 관여를 하는데 심의까지 하면 권력이 집중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5명 중에 1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52명을 선임했거든요. 그러면 장르 당 거의 10명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 같은 경우 확대되기 때문에 장르 당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은 되겠죠. 30명, 40명에서 1명이 들어가는 것도 권력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비교를 해 보면.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지금 이것은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직원들의 경우 전담심의관이 되잖아요. 전담심의관이 될 때 의견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내부 1명의 심의관으로 인해 심의결과가 좌우될 여지는 적을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심의관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개입하니까 정말 5명 중에 1명인데요. 이 사람의 역할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30명, 40명에서 위원 1명도 못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장르를 대표하는 1인인데 그 심의 과정에 한 분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은 안전순위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무처장님 보고할 게 있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순서와 관련해서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9월 29일에 제가 위원님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성기숙 위원님과 가장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은, 두 번째 안전을 첫 번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접수 순위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되거나 혹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 제안이 있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이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배은주 위원 : 두 번째 안전을 첫 번째로 바꾸는 것을 결정하면 그때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급한 사안이니깐 첫 번째로 먼저 순서를 바꿔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의안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안 진행 순서를 바꿔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078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결정의 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고 전에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공개절차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거나 해당 안전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 시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전은 위원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개로 그냥 해도 괜찮겠어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공개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제안해 주신 성기숙 위원님께서 본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의결의 건과 관련해서는 왕치선 위원님, 장미진 위원님, 구문모 위원님 등 4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드린 건데요. 제가 대표로 안전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무용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모에 응시해서 심사를 거치고 공개 검증을 거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구요. 모든 것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9월 9일 문체부의 정책 세미나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간부들이 다 참석을 하셨고 저희 장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방향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담심의의 문제는 문체부의 정책방침도 있지만 장·차관님이 현장간담회를 장르별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회의 전담심의 참여의 건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공정한 심의가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973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발족을 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원기구의 종가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가 예술현장에서 정말 공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우리 현장의 예술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8월 30일 전체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회 전담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이 위원이 전담심의를 참여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이미 2023년도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 혹은 불가 방침의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법적인 문제를 법률가들에게 여쭙보고 규정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OT 때 3시간 동안 진행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관과 규정을 전체로 봤을 때 문예위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참여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의 해석은 “이것은 법적인 검토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항 어디에도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제가 직간접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예술지원본부장님께 여러 차례 전담심의의 비상임위원 참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4명의 위원이 공식안건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의 직무에 의거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의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재론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기록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속기록을 봤을 때 불가라는 의견으로 규정을 짓기 보다는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르 위원님들의 의견에서는 위원의 전담심의를 찬성하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라는 의견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에서 “우리 신규 위원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재론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기금 전체 예산의 90%가 장르 사업에 안배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정시 공모 자료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예술, 기초예술 장르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르 위원들의 책임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의 여론입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예위의 직원들이 이 쪽 분야에서는 행정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예술현장에서 작품의 미학적 가치 판단을 전문성을 가지고 제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월이 축적되면 문예위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 하면, “문예위 직원들의 각 예술 장르의 전문성, 미학적 가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완충작용 또는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검증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들도 전담심의를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보완 되고 대외적으로 공정성에 있어서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담심의를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는 취지의 뜻으로 이 안건

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이따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 중에 “이게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전년도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단서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것은 또 개별적으로 의견을 다 들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여쭙했을 때 “이것은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죠.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차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다르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견 개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수 위원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성기숙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저희가 논의했을 당사가 올 초 시범운영을 결정하기 전에,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그때 저의 기억에 2024년도는 시범운영이고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장르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범운영에 대한 것을 논의한 것이죠. 그것이 2025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요. 그런 의미로 그때 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25년도 사업을 지금 하려면, 지금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흑백의 논리로 나눠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의 의견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다 책임심의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의결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의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의결되기도 힘들고 다 안 된다는 것으로 의결되기가 힘들면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열어놓고 본인 장르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들어가시고 또 본인이 들어가는 게 책임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 장르의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보완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라고 막는 것보다 들어갈 수 있는 장르의 위원님들은 위원님의 의견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어놓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 장애인 분야의 트랙에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분야를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문화일반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분야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2025년이나 그 이후에 편성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을까?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담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열어놓고 참여 여부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저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장르별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악 쪽에서 누가 심의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는 정도는 있어도 전투적

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담심의회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뭔가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여기 저기에서 심의를 해 본 경험으로는 음악 같은 경우 심의에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심사에 들어가 봤고 우리 예술위원회 것도 제가 심사를 해 봤는데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고 지원서의 거의 80% 정도가 기획사에서 작성을 한 서류들이고요.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되고 나면 성과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열심히 추적하지 않는 한 걸러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이 된 다음에 지난번에 “6명 정도를 추천해라” 라고 해서 전체 심의위원 후보단을 보여주시고 봤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획사 사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명단 자체가 작년 말에 어떤 식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서 줄인 명단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심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100% 걸러낼 수는 없지만 음악 장르의 특성상 기획사 사장들이 너무 관여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거를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회의 이후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심한 경우 예술위원회에서 예술가에게 지원된 돈의 30~40%를 기획사가 가져갑니다. 특히 힘없는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한 걸음으로는 굉장히 평온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숙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속으로는 “내가 위원일 때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위원장님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렸을 때 “우리 쪽 제일 문제는 대관 문제다.”, “그다음은 기획사 문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아마 장르별로는 그런 것에 대한 투철함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 장르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장르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절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왕치선 위원님의 기획사 얘기를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할 때 참여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쪽 심의 과정을 보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사를 통하지 않으면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기획사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사를 통해서 들어온 듯한 이런 부분들은 더 엄밀하게 심사하고 가능하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함께 공유하고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성기숙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지금 배은주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자율성 여부를 말씀하셨다가 충원의 문제까지 연동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왕치선 위원님의 심의위원 후보단 충원의 필요성. 음악 장르에서 여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8월 30일 선정위원회가 오전에 열렸을 때 그것은 규정에 없는 회의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고요.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저는 충분히 예술지원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에 픽스 된 최종 무용 분야의 후보단 명단을 제가 검토했을 때는, 제가 선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무용에는 크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3가지 장르가 있는데 장르 안배가 무시돼서 편중되어 있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사 그리고 현재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꽤 명단에 있었

습니다. 기획사라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후보단에서는 가급적, 물론 완전히 1명도 없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비율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명단에 있는 후보단의 면면을 봤을 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봤을 때는 심의하기에는 전문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조금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서 충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예술지원본부장, 처장님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도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8월 30일 간담회 때도 제가, 우리 배은주 위원님의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여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율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장르별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 1월인가 속기록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참여를 하면 다 참여해야 되고 아니면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요. 민간자율기구이고, 장르 특성이 너무나 강한 상황에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취지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연극, 전통예술, 음악 장르 위원들이 계신데 장르의 특성이라든가 현장의 구조라든가 생태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담심의에 참여한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열어둬서 동의를 한다면 어떤 사업에 참여할지? 5개를 할지 1개를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의 여력과 관심도, 전문성, 시간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신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답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승미 위원 : 저희가 전담심의회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지고 TF가 결성돼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속기록을 다 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한 가지 커다란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같이 만든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란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서..... 저희는 그냥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책임심의제가 결국 저희 전담심의회로 같이 의견이 다 조율된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는 충분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너희가 안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책임감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봤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변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면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맥락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왕치선 위원님의 음악 분야처럼 저희 전통예술도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의 반응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좋은 작품을 뽑는데 집중한다면 저희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 심의든 의결이든 심사위원 선정이든 어쨌든 한 위원이 그것을 다 관장한다는 부분은 좋은 취지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을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르마다 맡겨서 하는 게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심의 자체가 요즘 통합심의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는 위원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쉬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던 간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어떻게 됐든 이것은 한 두 사람이 아니

라 전체가 모여져서 그게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을 얘기하고요. 제 의견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작년에 심의제도운영개선 TF를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승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TF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전담심의제를 꾸릴 때 전제조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해 본 이후에 문제점과 어떤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방향성을 찾자. 어차피 2025년도에는 전 분야로 넓혀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열어놓았기 때문에 해 보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의결하고 제안하고 개선하고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 어떤 게 문제점이 되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의에 참관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명, 30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르 대표로 들어와서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사후평가까지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쥔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 장르 위원이 들어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른 심의위원 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대표하고 예술가를 대표해서 장르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년 반 동안 문예위가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했던 것처럼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전담심의제를 할 때도 현장과 소통을 했던 것을 장미진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 장르 또는 장르 위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심의에 들어가려면 이 또한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 뒤의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들이 전담심의제에 들어가고 심의위원 추천, 심의 의결, 사후평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과정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연극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시끄러운 분야입니다. 가장 전투적이고 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원한다면 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게 공정성을 더 높이는 일이라면 저는 연극 장르 심의에 들어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계속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논의,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별로 논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 8월 회의 때 제가 그랬어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차후에 논의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회의록에서 그 부분이 덜어내졌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논의가 안 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논의가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그때 인식을 했고요. 제 질의서 1번인데요.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2025년 공모사업이 이렇게 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2차 지원기관이 된대요. 저는 그것을 9월 9일에 알았어요. “2차 지원기구가 되고 책임심의를 확대해서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장으로 답이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냥 “참석했다.”, “참여했다.” 인거지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은 없어요. 위원한테 “2차 지원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맞느냐?” 라고 한 번도 우리가 토론한 적이 없어요. “전담심의회, 책임심의회를 작년에 시범운영했는데 어떠했고 우리는 어떤가?”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각예술의 경우, 제 질의서 6쪽을 한번 봐주시면 “시각예술의 경우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 지원금, 지원규모를 논의하잖아요. 7쪽을 보시면 7월 31일, 8월 1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김미라 위원님 아세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시각예술 부분에 어떻게 지원되고 얼마가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게 조율이 안 되었고 합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임심의회에 대해서도 별로 논의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굉장히 다르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이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들께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나 과정에서 우리 장미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묻는, 저는 제가 늘 우리 사무처에서 할 때 어떤 사안이 밖으로 공개될 때는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그 안을 보내드리도록 했어요. 또 공청회 과정은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공청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무시되었다고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가 언제 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인 안이 올라오면 저는 그것을 전부 다 한번 검토하고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제 의견을 사무처한테 “이런 방향으로 정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은 위원님들과 똑같다고 봐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일반인들한테도 전부 다 오픈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과정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자가 없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가장 단축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지 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같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개진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지금 1개의 안건을 가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개별적 시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떠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의견을 주셔서 모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의견을 주신 분은 배은주 위원님께서 “이것을 딱 담아놓거나 규정하지 말고 비상임 위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참석할지 안 할지는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참석할 수 있느냐?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참석한다고 하면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 것이냐?”, “참석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의견이 좁혀질 것 같아요.

이훈경 위원 : 연극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공청회가 있지 않으

면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은 시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담심의제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핵심은 예전에 심의위원들을 이미 선정했던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담심으로 바뀌면서 공모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됐는데요. 전담심의제 자체에 대한 부분의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대한 선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평가도 하고요. 평가한 것들을 의결도 하고요. 4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했구요.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 장르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사전에 논의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부족해서 약간 논리에 대한 대립각으로 갔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장르별 상황을 들으면서 “장르별로 환경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뒤늦게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예술 장르의 경우 기획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심의위원 후보군을 추천하고 선정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어떤 위원이 선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호불호는 있겠으나 의견이 달리지 않을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분들이 전담심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고요. 다만, 시각예술 분야는 공공기관에서 현장과 행정을 다 아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전담심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의 사업에 A부터 Z까지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절대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르적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장르별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전담심의를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의결하기 보다는 전담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요. 단, 그 부분은 사업별 특성과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시범운영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두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논의 자체가 내부적으로 먼저 수면 위에 올라오는 모양새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장관이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문체부와 예술위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 간격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던 간에 상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쏟아진 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습의 일환으로 전담심의회 확대시행을 앞두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장르 간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참여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다 참여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위원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될 문제고요. 다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공정성 문제나 책임성, 신뢰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규정에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함께 가야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들이 생길 수 있고, 규정은 사실 제가 사무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장께 위임을 하면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요. 그래서 장르만 들어갔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심의를 하고 의결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로스 심의를 한다거나, 사실 장르 사업을 그 장르 위원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르만의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문화일반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연극하는 분이 무용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음악 하는 분이 연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심의에 잘 반영된다고 하면 훨씬 공정성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위원들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위원들이 참여를 하되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어떤 방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배은주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지금 세 분이 주시고 김진각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도 고려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정갑영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정갑영 위원 :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꾸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말을 낳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다만,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의 근본은 엄정한 공정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상 오랜 역사가 있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요. 직원들 참여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가 회의에 참가한 동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전담심의에 나서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그때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원이 참여하는 전담심의회가 된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가 있었죠.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심의위원 후보단 제도가 생기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모를 새로 하고 걸러서 후보단을 다시 만들었고 거기에 직원이 참여하는 전담심의로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장관님과 2번 미팅을 했는데 장관님이 책임심의하고 전담 얘기를 다 하셨어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관님의 생각에서는 책임을 지면 공정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심의제도는 후보단, 풀제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분산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장관님도 얘기하신 게 “위원이 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직원이 하고 누군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신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담심의회가 되었던 것이고 내키지 않아 하던 직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런 구조는 계속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단 한 가지 네 분이 제기했던 것은 위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김진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화두. 문체부의 정책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권의 가치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담보된다면 사실상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나 전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가 정리된다면 위원이 한 명 더 들어가서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장르에 따라서 아니면 위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전담이든 위원이 한 명 들어가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국회에 있을 때 문예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취지는 일단 정부에서 진흥원장이 바로 임명되고 독립체로 운영되다 보니까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예술계 풍향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위원회로 바꾸게 되었고요. 또 장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고요. 창작품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야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르별 위원이 6인인데 일반위원도 6인입니다. 동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양질의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좋은 작품들을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르적, 창작적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위원님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합의제로 이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어떠한 방법도 지고지선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ですよ. 다만, 시대적 환경을 따져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냐? 그것을 논의하는데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옳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다음 기수의 위원들이 오면 또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기수가 오더라도 “이게 최선이였다.” 라는 쪽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같이 모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정갑영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저도 한 가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심의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전담심의제 내에서 비상임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거나 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한번 더 명확히 생각하게 되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배은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장르별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열어놓고 장르별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각 위원님이나 정갑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장르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이 사업의 특성상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가? 또는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저희가 몰랐던 장르별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비상임위원이 그 전담심의제에 참여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며 그 절차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여러 의견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전담심의제 시범운영한 것. 이것과 현재 위원회 참여 문제는 별 건이라고 보거든요. 전담심의제 시범으로 참여한 것은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무용 같은 경우 5인으로 구성해서 전담심의제 시범사업에 준해서 단위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의 참여 건이기 때문에 별 건인 것 같고요. 지금 회의자료 11쪽을 주목해 주시면 전담심의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주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방침이나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의 괴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수습을 해야 된다. 저는 심각하다고 전혀 보지 않고요.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좁혀 가면 문제가 없고 정부의 방침이나 장관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여론,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명백히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책임지고 비상임위원이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성 문제에 대해 김진각 위원님이나 정갑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데요. 예컨대 “비상임위원들이 이 심의에 들어갔을 때 공정하지 않고 안 들어갔을 때 과연 공정한가?” 역발상으로 장르의 개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르별 전담심의를 위원들이 했을 때 예컨대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 장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속으로 지속사업을 할지 안 할지? 또 해외진출까지 연동해서 가는 문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연계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다단계의 전담심의를 통해서 심의의 고도화를 염두에 둔다거나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후속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이 장르별 전담을 우리 비상임위원들이 하셨을 때 저는 역으로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일반 위원님들은 장르 쪽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장르 위원들의 말씀을 심도 있게 경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정성을 어떻게 타개하고 담보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공정이라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투명성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 결과에 대해 저희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술계 현장에 어떤 측면에서 이 작품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전문가로서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유를 공개 브리핑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이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담심 의는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 그 안에서 몇 개를 할지? 어떤 것을 할지는 각각 장 르별 차이가 있으니까 비상임위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오 늘은 “전담심에 참여한다.” 까지만 결정해 놓고 후속으로 간단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하나로써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우 려하는 게 “해야 된다.” 라는 것과 “할 수 있다.” 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담심에 참 여하는 건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각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된 다.”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문구 자체에 자 율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 안에 ‘비상임위원’ 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이것은 크 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비상임위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나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상임위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 로 일단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참여 방법 등은 어떻게? 심의 방법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 죠? 그랬을 때 논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다 더 많은 위원님들이 공론화를 시키려면 지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논의가 되었는데요. 아까 보면 김진각 위원님, 서승미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지금 전담심의회 위원님들을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위원님들이 들어가셨을 때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을 참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르별 위원님들만 해서는 안 될 문제이 기 때문이에요. 김진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화일반분야 위원님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논의구조를 가지고 나중에 의결하시는 구조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12월에 통상 심의를 하고 전담심의회위원으로 성명이 발표되는 시기는 10월 말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보고 10월 중순까지라도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규정으로 지원심 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규정이라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고 나중에 안으로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요식 절차니까 문제는 아니고요.

배은주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고 방법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안전번호 제1078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결정의 건은 “비상임위원도 전담심의제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는 심의제도 논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종적인 안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10월 말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것을 그냥 사무처에다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맡겨서 안을 만들도록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김진각 위원 : 정식 TF는 아니더라도 TF에 준하는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시기구, 특별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어쨌든 간에 이번 월말 전체회의까지는 결말이 나와 되거든요. 그러면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서 같이 해 주실 의사가 있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성기숙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비상임위원도 전담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의결이 되었고요. 그 후속으로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의 2항도 개정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2항이 뭐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7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전담심의위원회 자체 구성이 외부인사와 사무처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외부인사 그리고 사무처직원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조의 6항을 보면 “심의전문성 및 심의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심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은 사무처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사무처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원심의 운영규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되면 후속적인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지원심의 운영규정 5항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 부분도 의사봉을 두드려 주셔야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두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차상 올라와야 두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절차의 문제입니다.

성기숙 위원 :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절차의 문제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TF팀에 구문모 위원님이 참석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성기숙 위원님. 그리고 아까 김진각 위원님과 정갑영 위원님도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은주 위원 :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다 들어가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다 강제로 한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들이 다 다르고 의결정족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은주 위원님, 서승미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 성기숙 위원님, 구문모 위원님까지 5인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음 전체회의 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TF팀으로 구성해서 이것도 의결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10월 말일.

성기숙 위원 : 그러면 2025년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성기숙 위원 : 그것을 의결해야 돼서요. 10월 전체회의에서 또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간담회 형식으로요. 오늘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할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제도의 구체적인 안들은 방향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10월 8일에 내년 사업공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몇 몇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심의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큰 줄기는 바꾸었지만 보완할 부분은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10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대국민 보고에서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임위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안건으로 해서 10월 말에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회의가 2번이나 무산된 것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논의로 이것을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 안건으로 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의결해야 되는 건인지? 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

면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여태까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들어오셔서 서로 오해가 있었고 의견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두 번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운영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문화예술인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이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시고요. 절차는 우리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결정되면 우려도 씻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존중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해 차원에서 사무처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우선 TF를 구성하시고 TF에서 논의하는 건은 일반적으로 보고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심의 운영규정 같은 경우 기본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지만 만약 이것을 지침으로 다룬다면 그것은 위원회 의결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보고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보고안건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의를 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사무처에 맡겨 놓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테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쉴까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77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그리고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10조에 직전 연도 10월 말까지 정시공모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안전 상정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은 공청회 종료 후인 9월 6일에 각 사업별 공고문을 미리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미진 위원님과 성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

비하면서 아무리 절차상으로 계속 위원님들께 여러 자료를 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공모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공모사업 예산은 저희 일반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포상금 그리고 일부 주관처 용역으로 진행된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 618억 원으로 총 25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정시공모 예산은 460억에 18개 사업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연계적으로 연초에 공모되었던 사업들 일부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분리하였고 7개 사업 15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시공모 사업별 심의 추진(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심의 절차가 서류심의로 끝나는지 혹은 서류심의를 이후에 인터뷰심의를 있는지 심의 절차를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총괄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장르별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 통합 심의사업 그리고 단체의 적격 요건만 확인하는 중점심의로 진행하는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사업 등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은 모두 전담심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담심의를 관하여서 비고란에 해당사업에 대해 추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계획은 연간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예산안 수립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이 공모사업 계획안을 안으로 보고드리는 건 9월 초지만 연중으로 기획조정팀에서 보고를 드렸던 예산안이 기재부와 문체부 협의를 거쳐서 정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문체부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후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5년 예산안 수립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관하여서 소액다건 지원사업을 폐지하거나 국제교류사업 관하여서 관계기관 간 역할조정 그리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사항들이 우리 기관의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라 문체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기초지원 관하여서는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기초재단을 포함해서 141개가 있습니다. 재단들이 이렇게 확대된 이후에 예술위원회가 50년간 수행해 온 여러 가지 기능과 중복된 부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조금 더 집중육성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관하여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창작의과정,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그리고 문체부의 향유지원 관련된 사업체계 정비로 인해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등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폐지됨과 동시에 창작주체 사업 등 다년지원 사업을 확대했고 공연예술창작산실의 2차 제작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예술도약지원 그리고 국제교류분야에서도 국제협력지원 등 신규 사업들을 새롭게 마련해서 우리 기관의 중점방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전담심의회 도약을 통한 심의전문성·책임성 강화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책임성 관하여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신청 편의성 강화는 부처 방향에 발맞춰서 행정 관련된 지원신청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2024년 기준으로 공고문을 봤을 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체계도가 상이하거나 혹은 안내사항, 유의사항이 너무 많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조금 더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했고요. 지원신청서도 2024년 기준으로 30페이지가 넘는 사업도 있었는데 지원신청서 양식의 분량도 15페이지 내외로 심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회 후속으로 시스템 관련된 사항도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시스템이라든가 접수 시에 지원신청서 그리고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는 중복사항도 최소화해서 지원신청자들이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자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하여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모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 추진 일정은 위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전담심의 구성 일정을 포함해서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다만, 앞서 안건을 논의할 때 TF팀을 통해서 상세한 추진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되었기 때문에 추진일정은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10월 안에 전담심의위원 구성이 완료되어야 11월 적어도 둘째 주부터 전수검토가 시작될 수 있고 기관의 핵심 사업들이 12월 말에 결과발표를 할 수 있겠다는 심의 일정안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더 면밀히 전담심의에 추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경우에는 이 일정들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몇 주 정도 지연이 되겠다고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현장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담심의 도입 및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사유는 보통은 주요 정시공모 사업을 12월 말에 결과발표를 목표로 운영해 왔으나 전담심의를 운영했을 때 장르별로 접수 건수를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3주간 그리고 12월 말 내에 심의가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내부 검토결과와 이번에 추가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담심의 시범운영을 했을 때 더 적은 사업 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전수검토 기간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에 심의 일정을 아예 분리하여 진행하여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결과발표 시점을 분리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안내는 작년에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문예진흥기금 공통방침입니다.

지원신청 제한과 관련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미정산, 미납납, 부정수급 관련 건이 점차 늘어나고 누적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정산 그리고 올해는 반납금까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국가문화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사업의 중복 선정 및 보조사업자 다중 선정 제한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기관 내규 보조금운영관리규정도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에서도 동일인 단체에 대한 선정은 2건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3건에서 2건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선정되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협·단체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하였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이나 간접지원 형태로 확대하고자 하는 후원사업은 선정 건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창작주체와 창작산실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고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선정되었을 때 문예기금의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고요. 이번에 체계가 정비된 국제교류지원사업도 사업별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전담심의위원들의 모니터링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발표하신 것처럼 1차 서류심의의 양이 너무 많았는데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신 것 같은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발표하고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 정시공모 사업 중 대부분은 1차에 발표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게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난해 그리고 올해 별도공모, 추가공모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통상 접수건수와 상관없이 전수검토에 2주 정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심의위원들께서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요. 심지어 외부에서 태블릿이나 이동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심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장르 회의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일정을 1차 그리고 2차로 분리하고 심의일정(안)을 보시면 사무처에서 한 주 정도 행정검토를 끝내고 심의위원들께는 3주 정도의 전수검토 기간을 드리는 것으

로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전담심의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전담심의위원 구성 그리고 아직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행하고 나서 이 기간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예술인재양성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술인재양성팀은 11월, 12월 중에 예비예술인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사업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예술가도약지원까지 같이 심의를 진행하는게 업무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분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처에서 행정적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크신 것 같은데요. 공모지원을 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2차, 3차로 나뉘었을 때는 조금..... 예를 들면 1차 정시 공모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때 2차 지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달라서 1차, 2차, 3차가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실제 지원연령을 34세 미만으로 아예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수요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렸고 충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잘 봤고요.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새로운 개선안의 첫째 목표가 2차 지원기관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2차 지원으로 간다는 어떤 성격이 안 보여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안 보여요. 조건에도 어디에서 뭘 받았다는 등 2차 지원의 특색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공연예술 하나만 봤을 때 창작산실의 경우 올해의신작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차 제작지원의 경우에는 진짜 2차 제작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올해의신작이나 봄 작가 겨울무대에 선정된 작품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전국을 커버하는 예술위원회 2차 지원 의미에 맞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2차 지원을 받은 작품들을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있다면 2차 지원기관으로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선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괜찮으시면 담당팀장으로서 답을 미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 문체부와 긴 논의과정을 거쳐서 예술위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극장이 이 사업을 공동기획으로 특화시키는 사업의 형태를 갖기로 장관님과 문체부 담당 과장님과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창작산실 사업의 올해의신작을 발표하면 이 작품들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2차 제작을 통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차 제작지원이라는 문체부 큰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창작산실에 특화된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올해 있었던 ‘마리퀴리’와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와 협의하여 승인 받은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2차 제작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7쪽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지역예술도약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광역문화재단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받은 작품들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작품에 대해서는 지역예술도약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공모는 이번 정시공모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역문화재단에 2024년도 지원 성과가 다 보고가 되는 내년 2월쯤에 공모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별도트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차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사업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공모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방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공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자.” 그래서 1차 지원은 가능하면 지역문화재단에서 하고 거기에 올라온 단체나 창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연계지원으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단체나 작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더 붙어야 한다고 하면 기획자도 붙여줘서 중앙에서 하거나 해외로 나가도 손색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관 간에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장미진 위원 : 전체예산 중에 47억인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1차 지원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까지 공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사다리를 만드는 예산은 이게 중요한 예산이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기재나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2차 지원이라는 것은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안에서 오고 간 행정적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계지원’, ‘후속지원’ 이라고 표현하려 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차 지원만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문체부에도 지원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재단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강화하든가 혹은 이미 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술가들로 안내를 한다는가 하는 방향으로 연계성을 조금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업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약간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기관별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여러 번 회의가 있었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업의 성격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 내의 직원들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겨우 되었는데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예술인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공모사업 지원 앞단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까지 지원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서울문화재단에도 공모를 하고 예술위 공모사업에도 공모를 했다가 둘 다 되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원 시기를 차별화한다거나 하는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원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도 공모기간이 겹쳐서 똑같지만 포맷을 달리해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청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연계지원, 후속지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1차 지원이 아니라 2차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질문입니다.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 1차 사업을 했던 작품을 보완한다고 했는데요. 1차 사업 선정 기간이 작년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보통 제한 요건을 보면 향후 3년 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신 건지를 여쭙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일단 지역에 17개 광역문화예술재단이 있고 기초까지 보면 약 142개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방침은 광역문화재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지역에

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그 지역의 작품이 올라오면 그런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그 범주 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라 위원 : 광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작년 사업에 한 하는 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정하지 않고요.

김미라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안 줘도, 10년 전에 했던 것도 괜찮으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쪽에서 “우리의 대표성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살리고 싶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퍼토리화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지금 설계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이 매년 있을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해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면 2024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한정되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르별로 봤을 때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원을 받았던 작품을 재지원해서 스케일을 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시각예술이나 문학은 작가지원으로 선정된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지원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최근 3년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예술도 그해의 연도, 2024년도에 지원 받았던 작가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공모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심의를 통해 가리는 구조로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왕치선 위원 :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언급드릴 건 없는데요. 아까 장르를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기획사를 통해 하는가?” 지원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가 어떻다는 게 있어요. 오늘 주신 회의자료에도 보면 누군가가 우리 위원회에 뭘 지원하려면 홈페이지를 한 7개를 살펴봐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신청을 하려면 현재는 기관 누리집인데 아트누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접수를 하려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표는 누리집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두 군데에서 하고요. 보조금 사업 운영의 의무사항을 보려면 ‘bojo.go.kr’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술인고용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예술인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다 필요해서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예술가거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있어서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건가?” 싶고 누구에게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홈페이지도 여기 저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냐? 2차냐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가 봤을 때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찾아보는데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업별로 플랫폼이 다 달라요. 무려 22개나 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합 작업을 하는데 통합 작업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큰 틀은 하나 나오고요.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NCAS 따로 하고 e나라도움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국재정정보원하고 1대 1로 만나기도 하고 MOU도 체결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달라서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참 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르

코' 라는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트누리로 지원사업 정보를 옮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아트누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통합플랫폼을 만들자고 지시를 하셔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다른 부처나 지원사업 공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창업진흥원 전체 사업도 통합플랫폼 하나에서 지원신청부터 교부까지 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만 기관별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고 기능에 따라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아트누리도 그렇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도 그렇고 서울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단 지원사업 정보까지 다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연결 구조를 제안해서 예술가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향후 기관 간에도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문체부 산하의 기관 간 통합이 돼야 연계가 됩니다. 한 군데 들어가면 쪽 연결해서 해외도 나가고 지방도 돌고 하는데요. 기관 간에 분절된 칸막이가 있고 같은 기관 내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가 있고 장르 간 칸막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우선 저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지영 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4쪽에 달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40쪽에 달하는 답변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답변 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어제 낮에 문자 통지를 받았고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것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보고 답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시공모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한 두 차례라도 우리 위원들과 설계단계, 중간단계, 문서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으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정부안은 예산 문제가 연동되어 있으니 그런 시점이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기재부 정부안이 확정된 게 8월 30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 간소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제 질의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간소화와 함께, 연극분야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거나 낮춰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연극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에서 예술인들이 느끼는 실효성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을 해서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를 보면 전담심의제를 1에서 1.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정시공모 계획(안)에는 3배수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 질의문에 있습니다. 규정 위반사항으로 보여서 10월 8일 공모사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정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무용계에서 2024년 정시공모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언론사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비평과 저널 지원이 1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순수예술, 기초예술의 창작활성화가 방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의 예술지원 심의의 방점은 순수예술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표방하는 정책과 예술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세부적으로 또 여러 트랙에 투영되었는

지가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아직 안 끝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표현의 문제나 문구 등은 실효성 있게 현장 예술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수정을 제안드리면,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미세한 부분은 수용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럼요.

성기숙 위원 : 또 공연예술팀장께서 축제 관련 설명을 하겠다고 이 회의 직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거요?

성기숙 위원 : 축제 관련요.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듣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축제 부분은 기존 안에서 처음에, 정부 방침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문체부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체부와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거죠. 예산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3가지 원칙이 정해진 것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 따로 우리 기관 따로 갈 수는 없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지만 집행하는 과정 속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더 나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 방침을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부 어느 위원회도 다 협의 과정이 없으면 이 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위원회 전체회의잖아요. 부의안건이 올라오고 의결하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의가 약간 국감이나 청문회가 연상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회의를 하려면 지구력을 강하게 무장하고 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담이고요. 위원님들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회의가 아니고 사무처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별도로 메일을 주고 사무처와 1대1이나 부서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가까이에서 유선이나 메일 또는 미팅을 이 회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무처의 팀장님이 제 사무실까지 오셔서 설명하거나 전화 통화로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거든요. 그것도 약간 스킨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회의시간을 압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담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사무처가 존재하는 건 위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운영을 잘못해서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다 듣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업공모 평가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올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컨택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 전달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주구장창 사무처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미션은 통계 부분이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피드백이 잘 안 와요.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피드백이 잘 안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운영관리를 잘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문서로 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불러서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성기숙 위원님이 앞서 질의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뒤늦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3-2번이고 서면으로 드린 내용 3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담심의위원 우선순위 관련해서 필요 인원의 3배수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심의일정을 설명드릴 때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위원님들께만 한번 더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만 넣은 상황이고 공고문 안내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전담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사무처와 위원님들이 각각 1에서 1.5배수를 추천해서 그것을 합쳤을 때 3배수가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반드시 3배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섭외만 빨리 된다면 2배수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라서 그것은 TF나 향후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발언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정말 집약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이 굉장히 피로감,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저는 예술지원본부 공연예술팀,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지원총괄팀 등 모든 팀에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문제점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지를 공개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 사실 사무처는 위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위원과 사무처는 원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장 시간 논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원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은 생산적인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계시고 열정을 회의로 풀어 잘 논의가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79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연장 대관 심의 참여 결정의 건입니다. 이어서 성기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뿐만 아니라 아르코는 사실 연극도 그렇지만 무용은 명작 탄생의 성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관이 되고 안 되고도 현장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관심의

건도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는 하는데요. 미술관이나 극장은 별도의 운영체계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인지를 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을 주고 지원하는 작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관료를 내고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한 심사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사실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원한 작품들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작품들이니 그것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관료를 내고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극장 내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인력 구성이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주 내용인데 이것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규정을 보시면 알지만 극장하고 미술관은 별도 규정에 의해 극장장이나 미술관장은 공모를 해서 공모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이훈경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남은 기간의 공간을 어떤 단체한테 어떻게 대관하느냐는, 대표적으로 무용하고 연극 공연에 주로 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장르 간 갈등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지션 그러니까 비율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범주에 맞춰서 대관료를 받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과 그런 부분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측면, 극장의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원사업을 심사하듯이 심사하는 것은 애로점이 있어 과거부터 쪽 이렇게 체제를 바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다들 동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대관심의는 운영방향 설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도 장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위원회의 지원 방향과 조금 유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극장과 미술관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요. 혹시 여기에 위원들이 조금 관여하고 참여해서 위원회 지원사업과 연계가 더 많이 된다면 그런 우려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서승미 위원 : 사무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극장 측이나 미술관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아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극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그간 대관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보조금법에 따르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관은 대관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직접 극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작품이 극장의 운영방향에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적 절차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일자에 대관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일정까지 대관 기획자들이 조정을 하는 장시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극장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개방형 공모직을 통해서 극장장님을 모셨고 극장장님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극장의 운영 방향을 위원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금 개방형 공모직으로 절차로 진행된 사안까지 전부 부정하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의논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홍승욱 팀장님의 말씀이 조금 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르코예술극장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우선 공적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관을 통해서 대관자들이 일정한 대관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여불가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중에 한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도 위원회의 직무 중에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범주에서 보면 아르코예술극장, 미술관 등 개방형 공모를 통해 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소유하는 자산,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무 범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대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용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불공정 시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극장 측에서 운영했던 심의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했고요. 또 하나는 대관을 했다고 해서 여기 아르코예술극장은 창제작도 있고 대관도 있고 투 트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관이라고 할지라도 위원회가 표방하는 어떤 예술적 가치나 철학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다면, 위원이 전체에 다 들어가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일부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면서 그런 구조로 갔을 때 위원회가 표방하는 예술철학과 지원의 측면도 더 신뢰감을 예술현장에서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회의 진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처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다음 회차에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좀 논의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안해 주신 성기숙 위원님께서 다음 회차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은 차후 회의에서 계속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80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구성(안)입니다. 이것도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명칭은 ‘제도개선소위원회’라고 했지만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제가 위원으로 위촉 받고 두 달 동안 위원 활동을 하면서 규정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규정과 정관과 지침 등 규정집까지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과거에 개정된 것도 있고 일부는 개정 과정을 쫓 거쳤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예술지원 체계나 정부의 방침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관이나 규정 등을 밀도 있게 미시적으로 보면서 필요한 것을 찾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무처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전략소위원회하고 성격이 중복된다는 일부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도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번 회의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경영전략소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가 큰 그림 속에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조직제정비나 철학과 이념을 재조정한다거나 인사조직을 재구축한다거나, 기금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문예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큰 아젠다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바다와 같은 것이라면 제도개선소위원회

는 미시적인, 아주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사무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직무를 하면서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규정의 표현. 아주 작게는 문구, 용어라든가 표현의 문제까지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경영전략소위원회가 바다라면 바다로 가기 위한 섯강과 같은 역할과 구실을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나갈 방향.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범주 내에서 틀을 새로 짜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는 게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바뀌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들어와서 세세하게 보시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그때그때 의견을 주시면 바로 바로 규정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규정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어떨 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 : 이것도 안건으로 상정을 했지만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배은주 위원님이 피로감을 호소하셔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할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다음 회차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각 위원 : 지금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중장기전략을 짜고 있고 거기에서 중장기전략이 10월 말에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마무리 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전략체계가 잡히고 세부 과제들도 나오고 그런 이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꾸려도 사실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라는 게 시점이 연초에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소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것은 타이밍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장기전략이 일단 마무리 되고 내년에 소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내년에 충분히 논의해도 될 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그 시점을 여쭙봤는데요. 지금 가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12월과 1월에 종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타이 건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다음 회차에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도 제안자이신 성기숙 위원님께서 다음 회차에 후속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도 다음 회차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5년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2025년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 대관 운영 방향은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현장 소통과 예술가의 창작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요. 창작산실 공동기획 연계 강화 그리고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기획사업 그리고 대관사업에 대한 3가지 가치, 기후위기,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3가지 가치를 설정하고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축제 사업을 위해서 국제적 축제인 경우 2개년 대관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르와 축제, 개인 및 단체 간 균형 있는 공모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특히 위원회 국제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위원회 국제사업과 주요 행사와의 연계성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 기간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공고기간을 준용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 간 공고기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름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방법은 별도의 대관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대관과 관련한 공모설명회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의기간은 12월부터 12월 18일까지 연극, 무용 각각 1회 진행하고요. 인터뷰심의 그다음에 통합심의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발표는 12월 말 극장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발표 예정일은 각 지역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우리 예술위원회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점,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적 상황에 따라 12월 말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공모가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창작산실 신작 시즌제와 2차 제작지원 시즌제 그리고 축제 2개년 정기대관 선정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국제발레축제, 창무국제공연예술제, 한국무용제전과 같은 사업들로 올해 선정된 작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사업인 봄작가 겨울무대, IFACCA 총회 등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770일을 전체 공모대관 일수로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기획사업들과 예술위 연계사업들이 많아서 714일 정도로 56일 정도 줄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의추진 절차는 설명을 드려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안)입니다.

보시면 창작제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로 각각 30%, 30%, 40%로 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는 아직 공연이 다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극장 가동률이 83%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공립, 민간 공연장을 합쳐도 가장 높은 수치고요. 통상 가동률을 보면 50.2%고 서울은 69.9% 정도인데 우리 극장은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단체의 대관일수 비율은 연극과 무용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단체 수로는 연극이 약 40건으로 38%를 차지하고 무용이 55건으로 5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극은 대관일수가 2주 정도가 소요되고 무용 같은 경우는 1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해서 일수 기준으로 하면 연극이 약 52%, 무용이 약 37% 그리고 기타가 11% 정도로 조정해서 대관이 진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대관 같은 경우 무용이 52%, 연극이 37%인데 2개 장르만 해당되는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기타도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기타 장르도 일단 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대관신청 자체가 적은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음악과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이나 국악원 같이 해당 분야 전문공연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요. 물론 들어는 오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 되었는지? 혹은 이 극장을 전용이라고 생각하는 타 장르의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전당도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다고 하지만 무용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대관 관련해서 제 질문지 안에 있는데요. 지금 홍 팀장님 말씀이 10월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연두에 두고 연내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2025년 2월, 3월에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계획(안)에는 2025년 3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대관료지원사업 공고를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대관료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대관은 매년 10월에 공모가 열려서 12월 말에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게 맞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대관료지원사업은 따로 공연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기숙 위원 : 나중에 좀 의견을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갑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로도 가 크다고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가지 안건이었는데 중장기전략 수립 경과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기금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등 2가지 안건이었는데요. 기관 중장기전략 수립은 지금 8부 능선을 넘었고 10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체계 초안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중이고 이것을 가지고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난 회의 때 나눴고요.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재원 안정화 국회 토론회는 당초 10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11월 첫째 주로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토론 라인업도 구성해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2024년 예술가치 확산소위원회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2가지 안건이었는데 첫 번째가 문화예술분야 민간 공익법인 후원지수 개발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원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들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수를 만들자는 차원이었는데요. 기업들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상황에서 강제성을 띄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재단 쪽으로 탄을 해서 민간재단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지수를 개발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회의 때는 사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민간재단, 삼성문화재단, 현대차 정몽구재단에도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내용을 보니까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단을 예술위가, 정부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은 후원지수 개발연구가 아니라 후원지수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코웹진 ‘에이스퀘어’ 라는 웹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독자도 굉장히 적고 효과도 미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발행주기를 바꾼다거나 웹진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향. 그리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요. 어쨌든 1기 편집위원회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2기 편집위원회를 조만간 다시 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아르코의 전략 방향과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10월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치기는 했는데 앞서 얘기가 되었던 TF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들어가시겠다고 하면요.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훈경 위원님까지 6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타이밍을 놓친 건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대해 질문은 했지만 답변 자료를 미처 못 봤는데 혹시 문체부에서 대한민국은 공연중이라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문예위에서 기존에 했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통합, 문체부와 연동해서 묶이는 게 아닌가?

정병국 위원장 : 묶으려고 하는데 현장의 저항이 적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설계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추후에 TF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장시간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2차 회의까지 하면서 일요일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전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 종료)